

2. 하느님 나라 (vs. 로마제국)

서론.

◆ 천국 (The kingdom of heavens)—마태복음에만 등장 (32 번. 산상수훈 8 복 영향); The kingdom of God=> 5 번 (신약에만 전체 69 번); (מְלֻכּוּתַּיְהוָה, the kingdom of YHWH; 대하 28:5)

1. 마 3:2 (//4:17)과 막 1:4 (//눅 3:3)과의 차이점=> 마태복음에는 요한의 "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" 구문이 없고, 요한과 예수의 메시지가 동일하다 (3:2//4:17).
2.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받음과 관련된 설명 (마 3:14-15). 요한복음에는 세례에 관한 기록이 없다.) 후대로 갈수록, 예수가 세례받았다는 점이 신학적으로 거침돌이 되고 있다.

◆ 하느님 (나라) vs. 하늘 (나라)

1. 이름을 피했다? (특히 포로기 이후; P 문서, 에스겔서). 하느님은 고유명사가 아니며, 하느님과 하늘을 동시에 쓰고 있다. "하느님/하늘 나라"를 당시 후기 유대교식 표현(מְלֻכּוּתַּיְהוָה)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구약성서에 그런 표현은 전해지지 않음.
2. 하늘의 반대/상반 개념은? 땅. (=> 땅의 권세). 그러나, 창 24:3 "YHWH, the God of heaven [and the God of the earth]) => 마 6:10 ("하늘과 땅에서처럼")

A. 그리스-로마 배경: Social-Science Criticism (사회/정치적 상황 분석)

- ✓ 예수의 메시지는 한 마디로 “하느님 나라”=> “나라”/kingdom/empire=> 사회/정치적 개념 (서술적? 혹은 수행적? not spiritual! => 행동을 수반/요구(要求)하는 언어)
- ✓ 성서의 말과 행동은 당시의 사회제도 속에서 그 참 의미를 갖는다. 우리의 사회제도와는 많은 차이가 있다(사회-과학 비평)

1. Kinship(가족) and Politics(가족과 가족의 상호관계=>fictive family) “Fictive kinship”=> Patron/broker/client

사회 제도: 혈통관계, 정치, 경제, 종교 (distinct but not separated)

- 혈통(kinship): 연대 의식, 소속감
- 정치(politics): 힘, 권력
- 경제(economics): 상호교환, 적응력
- 종교(religion): 존재 의미 부여, 영향력
- 성서의 사람들: 혈통(kinship)과 정치(politics)만이 일종의 규범을 형성 (domestic economy/religion vs. political economy/religion).
- 경제적 부(wealth)는 이것이 주는 명예(honor)를 통해 인식. 부 자체는 nothing (우리 세계와의 차이)
- 존재의 의미(종교의 영역)도 소속감(혈통)과 힘(정치)의 논리를 통해 인식
- 귀족(혈통)=>정책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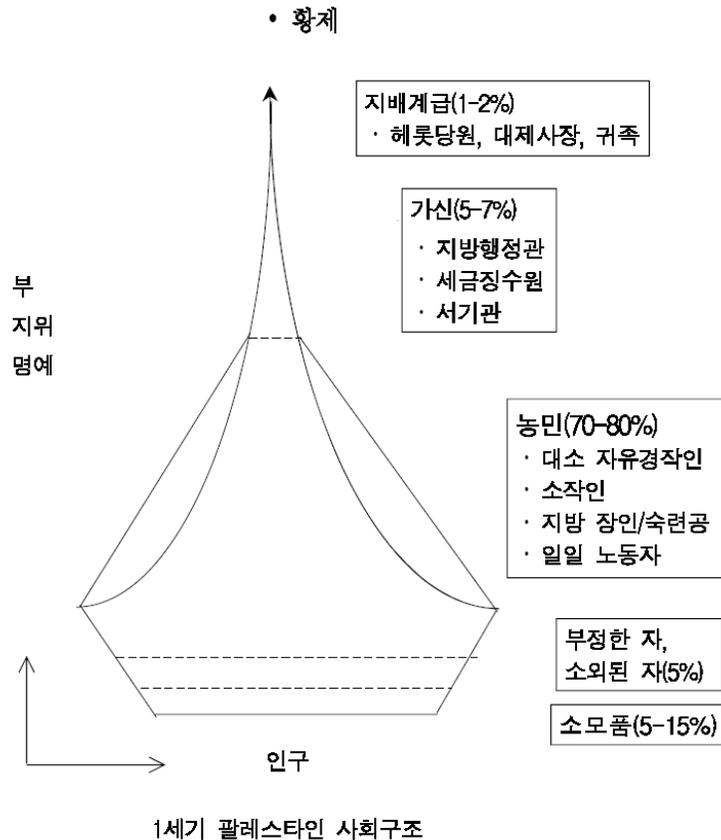
2. 사회구조: (발달된) 농경사회 =>철기사용(효율성=>surplus). 노동력=>사람+ 동물(소, 나귀)

특징: 빈부의 격차. 모든 권력과 부는 소수 귀족/지배계급에 집중

- 지배계급(1-2%)=> 50-65% 부(토지)를 점령
- 가신들(5-7%)=>관료(경제, 군사, 종교) 도시 밖의 토지를 관리(경작, 수확); 세금 징수=> 후견인/의뢰인 제도=> 다스림의 원칙.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반영)
- 상인(5%), 장인(匠人, 3-7%), 농민(peasants=>70-80%)=> 넓은 의미에서 모두 peasants 에 속함
- 천민(5%), expendables(5-15%)

\*\*소모품(The Expendables): Gerhard E. Lenski, *Power and Privilege* (1966), pp. 281-284

- 하찮은 범법자, 거지, 떠돌이 일꾼들로 자선/동냥에 의존해 생활
- 가난한 농민, 장인들 후손으로 아무 유업도 받지 못한 자 (농민계급에서 종종 소모품으로 전락)
- 불법/범법행위만이 유일한 소망, 탈출구



3. 세금: 토지세(land=property+income), 인두세(poll)=> 땅과 사람 모두 로마제국 소유물(proprietary rights).

인구조사=>재고조사

1. 공세(황제): 15%
2. 조세(헤롯왕): 20-35%
3. 십일조, 각종 헌물: 10-20%

농민들의 관심. “얼마큼 빼앗겼느냐”가 아니라 “얼마나 남았는가”=> 다음 해 농사가 관건(20%). 최저 생계유지; 물물교환 및 생필품; 공동생활 참여 (기본적 문화생활); 빛..

- ◆ 모자라는 금액=> 저당(토지). loan 20% 이자=> foreclosure (저당물 상실, “편의 전쟁”). 자금자족경제 (보리, 콩, 무화과)=> 수출입경제 (올리브, 포도, 밀). 무화과 저주 (막 11:12-14)=> 사회/경제 환경 반영?? (cf. 포도/무화과=> 왕상 4:25; 눅 13:6-7)
- ◆ 자작농=>소작인(막 12:1-12) =>일일노동자=>소모품(마 20:1-16). 최악의 경우=> 반란, 항쟁 (최소한 4 차례의 큰 반란) => 아래보기
- ◆ 주기도문=> 빛 탕감(마 6:12//눅 11:4)=>(“죄”라고라?). 마찬가지로, “making friend”(마 5:25-26//눅 12:58-59). 후견인(friend)을 갖는 것이 법정에서 서기관(지배계급 이해/이데올로기를 대변)을 만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빠른 해결책.

B. 반란, 항쟁=>최소한 4 차례의 큰 반란 (공통점. 정부/통치자가 바뀔 때)

1. 40 B.C.E 헤롯왕(37 BC—4 BCE)
2. 4 B.C.E. 헤롯왕 사후=> 2000 여명 십자가 처형
3. 66 C.E. 예루살렘 항쟁. 예루살렘 공격 시(時), 로마 장관 티투스는 하루에 오백 명씩 도망자를 십자가형에 처하기를 성밖에 “더 이상 십자가가 남지 않을 정도까지“ 했다(War 5.11.1-2)

4. 132-35 C.E. 바 코흐바 항쟁

결론. “하느님의 나라/제국”? (로마 제국과 상반되는 개념)

- 브로커 체제: 후견인/의뢰인 제도 전환, 타파. 예수(브로커)는 농민들(의뢰인)에게 하느님(후견인)의 복음을 전함. => 새로운 “가상의 가족”=> 지금의 언어, 상부상조/상생
- “복음”=>로마 제국의 이테올로기(Pax Romana=>전쟁, 정복; 황제의 생일, 방문) vs. 하느님의 이테올로기/복음=> 신령=> 성령 (다음 주 토틱)

Q. 그러면, 지금 우리가 살 길은?

1. Violent resistance (Zealots)
2. Non resistance (Essense, John the baptist?)
3. Non-violent resistance (Jesus)
  - ◆ 자본주의, 경제적 제국주의 상황
  - ◆ 분배, 상부상조 vs. 독재, 부의 권력/독점 (Wall Street)

또 다른 도식

1. 체제전복=>공산체제 (Q. 지배체제만 바뀜)
2. 기도원 생활, 수도, 은둔
3. 부의 공유/상부상조 (부가 목적이 아님=> 수단=> 복음/행복/"구원"에 이르는 수단)

하느님 나라 이해

1. 이슬람 하마쓰 (حماس, violence) =>무장 전쟁
2. 천국=> 저 세상 (지배 이테올로기와 경쟁 포기)
3. 체제 안에 있지만, 지배/영향(total control)을 받지 않음

결론. 하느님 나라를 산다. (예수의 복음을 산다.) 예수를 믿는다? => 예수의 믿음을 내가 산다.

Reflection. 예수의 삶이 대단히 치열했다 (Yes! 고로 십자가형)

---

다음 시간. "성령과 더러운 영"